

2세 사교육 실태에 기초한 정책 시사점

김은영 연구위원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2세의 전반적인 사교육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교육의 시작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점, 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습 사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부모들이 사교육 강사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세아를 위한 사교육 교재가 워크북이나 학습지 중심으로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2세아의 사교육 양상은 가정배경, 특히 소득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 2세아가 더 어린 시기에 사교육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추출해 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높고, 이에 따라 자녀의 발달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이러한 관심은 자녀를 잉태한 순간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 부모들은 주변 지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적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 첫 1년은 대부분 자녀를 잘 먹이고 재우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1년이 지나 자녀들이 걷고 말을 시작하면서 교육에 한층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때를 전후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뇌발달이나 인지발달에 좋다는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보통 시작은 문화센터의 양육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빠르게 학습 관련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진다.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중에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도 있지만, 발달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 요소가 상당한 학습 중심의 프로그램도 많다. 부모의 기대에서 비롯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치원 하원 후에 외부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다니지 않는 아이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고,¹⁾ 유아가 경험하

* 본 고는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일부를 발췌하여 재조직한 후 논점에 따라 시사점을 작성함.

는 사교육 수가 증가할수록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이 커졌다.2) 영아기에 사교육 경험이 있는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어린이집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정서불안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 심지어 학원 원장까지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영유아들이 학습태도가 좋지 않고 집중력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4)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부모들의 교육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 사교육에 많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연령인 2세 영아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세 대상의 과다한 사교육 노출은 발달특성상 유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이며, 이후 유아기 사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 2세의 사교육 이용 현황5)

조사대상 2세아의 35.5%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6) 이 가운데 학습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42.5%, 예체능 관련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25.8%, 학습과 예체능 사교육 모두를 이용하는 경우가 31.7%로, 학습 사교육만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원기관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으나, 학습 관련 사교육만 한다는 비율이 51.0%로 가장 많았다. 학원 재원아의 경우 예체능 관련이 43.5%, 가정양육의 경우 학습과 예체능 모두 한다는 비율이 55.0%로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정에 비해 외벌이 가정의 2세아가 사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70~480만원 가구의 2세아가 사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이상으로 가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가구의 2세아는 다른 가구보다 학습 관련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2세아의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

〈표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함	안함	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모두
전체	35.5	64.5	100.0(537)	42.5	25.8	31.7
재원기관						
어린이집	29.4	70.6	100.0(434)	51.0	26.0	23.0
학원	76.7	23.3	100.0(30)	17.4	43.5	39.1
가정양육	54.8	45.2	100.0(73)	30.0	15.0	55.0
$\chi^2(df)$		40.88(2)***			22.148(4)***	

1) 김정원·이정아(2002).

2) 백해정·김현신·우남희(2005).

3) 장은미(2008).

4) 우남희·백해정·김현신, 2005; 이부미·이수정(2010).

5) 2세 부모 537명의 응답을 조사 분석 결과임.

6) 본 조사에서 정의한 사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제외한 개념임.

〈표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유형 (계속)

단위: %(명)

구분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유형		
	이용함	안함	계	학습 관련	예체능 관련	모두
지역						
대도시	48.3	51.7	100.0(245)	37.5	29.0	33.4
중소도시	24.7	75.3	100.0(205)	49.9	24.1	26.0
읍·면	35.6	64.4	100.0(87)	47.0	6.2	46.8
$\chi^2(df)$		31.21(2)***			5.23(4)	
맞벌이여부						
맞벌이	29.7	70.3	100.0(307)	41.0	25.4	33.6
외벌이	44.1	55.9	100.0(230)	44.1	26.2	29.8
$\chi^2(df)$		11.62(1)***			0.40(2)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28.7	71.3	100.0(66)	66.7	5.8	27.5
265~370만원	36.0	64.0	100.0(143)	49.0	30.8	20.2
370~480만원	42.5	57.5	100.0(128)	41.1	32.6	26.3
480만원 이상	34.1	65.9	100.0(200)	32.9	24.8	42.2
$\chi^2(df)$		4.10(3)			15.89(6)*	
부모학력						
고졸 이하	22.8	77.2	100.0(59)	56.0	5.2	38.7
전문대졸	32.0	68.0	100.0(151)	43.5	34.2	22.4
대졸	43.7	56.3	100.0(269)	42.2	25.3	32.4
대학원졸 이상	19.6	80.4	100.0(58)	32.4	16.6	51.0
$\chi^2(df)$		20.87(3)***			na	

을 살펴보면, 평균 주 2.6회 참여하였고, 해당 평균 이용시간은 47.6분이었다. 보조 양육자가 없을 경우 주당 회수 2.9회로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경우 2.1회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2세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 정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적당하다는 인식이 69.4%로 가장 많고, 조금 부족함 24.9%, 조금 과함 3.7%로 나타났다. 매우 과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2세아가 사교육을 시작한 연령은 2세가 5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세가 32.5%, 6~12개월 10.7%였으며 평균 22개월로 나타났

다. 이는 2세 부모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교육 시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부모가 생각하는 예체능 사교육 시작 시기는 5세가 3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세와 4세가 각각 24%, 평균 4.1세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학습 사교육 시작 시기도 예체능과 마찬가지로 5세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예체능보다 늦은 4세 중반으로 나타났다.

2세아가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은 체육이 39.7%로 가장 많았고, 국어, 미술, 음악 순이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보다 읍·

면지역이,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월평균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보조양육자가 없을 때에 처음 접한 사교육이 국어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월평균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예체능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세아 부모가 한 달에 지불하고 있는 사교육 비용은 수강료 약 10만7천원, 교재교구비 2만7천원이었으며, 총 비용은 약 13만4천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사교육 비용의 월 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3.9%였다. 월평균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수강료와 총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수입 480만원 미만 가구의 2세아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이었으나 480만원 이상은 13만원이 넘었다. 총 비용도 월평균 가구수입 480만원 미만은 11만원 수준이었으나 480만원 이상 가구 2세아의 총 비용은 16만원으로 약 5만원 비쌌다.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표 2〉 처음 접한 사교육 유형(2세 부모)

단위: %(명)

구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수학	과학·창의	국어*	영어	기타
전체	15.6	17.8	39.7	2.4	3.5	12.5	25.3	5.7	4.4
재원기관									
어린이집	12.1	16.7	39.3	1.2	1.1	13.2	27.4	1.9	5.6
학원	26.7	36.7	26.7	13.3	6.7	13.3	6.7	20.0	0.0
가정양육	22.7	9.1	50.0	0.0	11.4	9.1	29.5	11.4	2.3
지역									
대도시	15.7	16.2	46.9	1.2	4.0	6.6	22.3	4.2	2.8
중소도시	16.6	22.0	29.8	3.6	1.8	19.1	29.1	8.0	5.6
읍·면	9.7	8.3	30.7	6.8	8.6	28.1	31.6	5.9	12.0
맞벌이여부									
맞벌이	16.8	16.7	44.4	1.9	1.3	10.8	20.4	7.0	5.0
외벌이	14.2	18.9	34.2	3.0	6.1	14.4	31.1	4.1	3.7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6.6	9.5	12.2	0.0	4.7	8.3	61.5	2.0	3.0
265~370만원	8.2	13.1	29.9	4.6	6.2	23.3	33.1	5.2	2.0
370~480만원	16.7	16.9	36.2	2.3	4.8	7.2	26.5	8.3	14.1
480만원 이상	20.1	21.8	51.0	2.1	1.6	11.2	14.0	5.4	1.4
부모학력									
고졸 이하	14.3	12.5	28.8	0.0	1.5	36.3	46.1	18.1	0.0
전문대졸	7.9	9.1	45.1	2.8	3.2	9.9	26.7	2.6	4.3
대졸	19.9	23.0	38.2	2.8	4.4	10.4	23.0	3.3	5.0
대학원졸 이상	14.4	15.8	37.3	0.0	0.0	20.9	23.1	25.5	3.2

주: 복수응답임
* 한글, 독서, 논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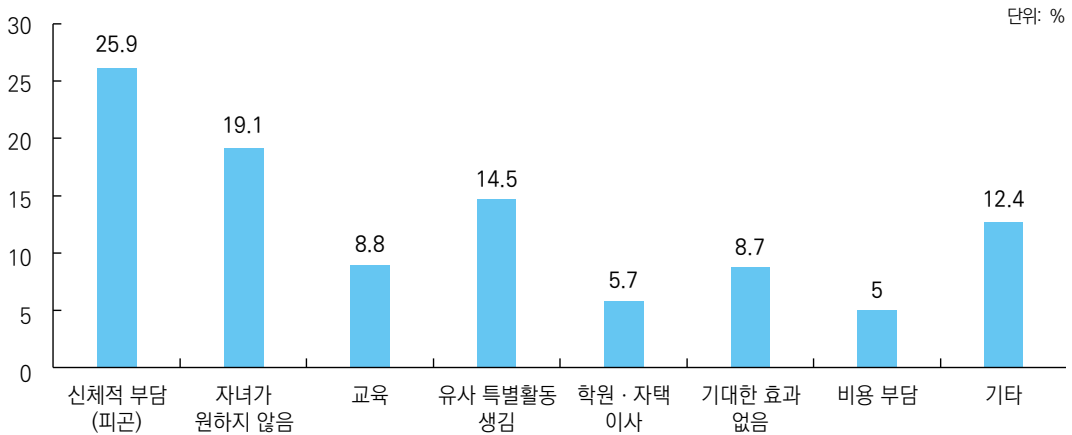
〈표 3〉 월간 사교육비용

단위: 천원, %(표준편차)

구분	수강료	교재교구비용	총 비용	월 소득 대비 비율
전체	106.9 (95.0)	27.4 (53.7)	134.3 (121.4)	3.9 (5.4)
월평균 가구수입				
265만원 미만	85.7 (100.1)	24.3 (93.5)	110.0 (178.1)	6.9 (13.6)
265~370만원	94.2 (103.7)	18.2 (30.2)	112.4 (112.0)	3.9 (3.8)
370~480만원	88.7 (71.1)	27.7 (50.9)	116.5 (102.9)	3.7 (2.8)
480만원 이상	130.7 (97.7)	33.1 (49.7)	163.8 (112.4)	3.3 (2.1)
<i>F</i>	2.93*	0.72	2.71*	na

* $p < .05$

주: F분석에서 알파벳 표시가 없는 경우는 F값은 유의하나 사후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그림 1] 사교육 중단 이유(1순위)

높았다.

2세아의 21.6%는 과거에 사교육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2세아가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는 ‘신체적인 부담’이 2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유사한 특별활동 생겨서’ 순이었다.

3. 사교육 프로그램별 이용 특성⁷⁾

조사 대상 2세아가 참여하는 모든 사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세아가 수강하는 프로그램의 유형은 국어가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이 15.1%, 미술 14.5%, 과학·창의 10.2%, 수학 7.9%, 영어 7.7%, 무용 6.4%, 음악 5.4% 순으로 나타났다.

2세아가 이용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

7) 모든 조사 대상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n=392)을 종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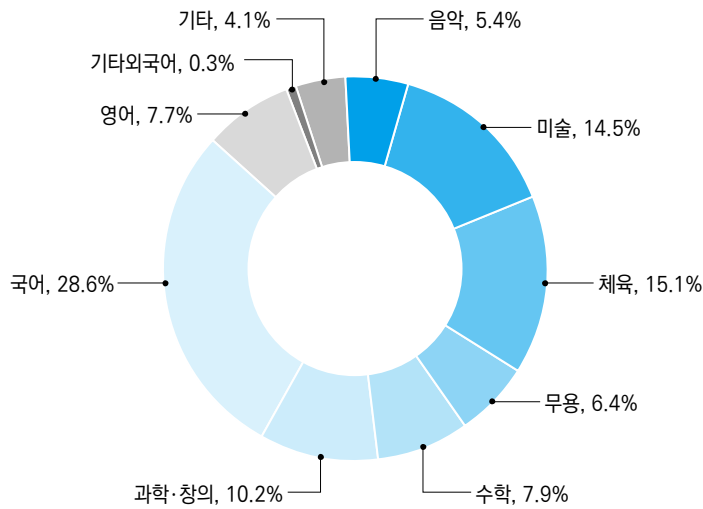
집 중 조 명

지는 장소는 집이 53.1%, 문화센터가 23.7%로 가장 많았고, 학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교육은 문화센터(48.1%)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원과 집이 많았다. 학습 사교육은 집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79.9%로 가장 많아 예체능과 차이를 보였다.

부모들은 2세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학력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다. 학력을 알고 있는 경우 대학교 졸업이 40.6%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대학원졸 등은 10% 미만이었다. 프로그램 유형 별로 살펴보면, 예체능 강사는 대졸이 40.7%로 가장 많고 학습은 모름이 43.9%로 가장 많았다.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모른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인 경우가 31.6%로 다음을 차지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예체능은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전공자)가 45.7%로 가장 많았고, 학습은 모른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단위: %, N=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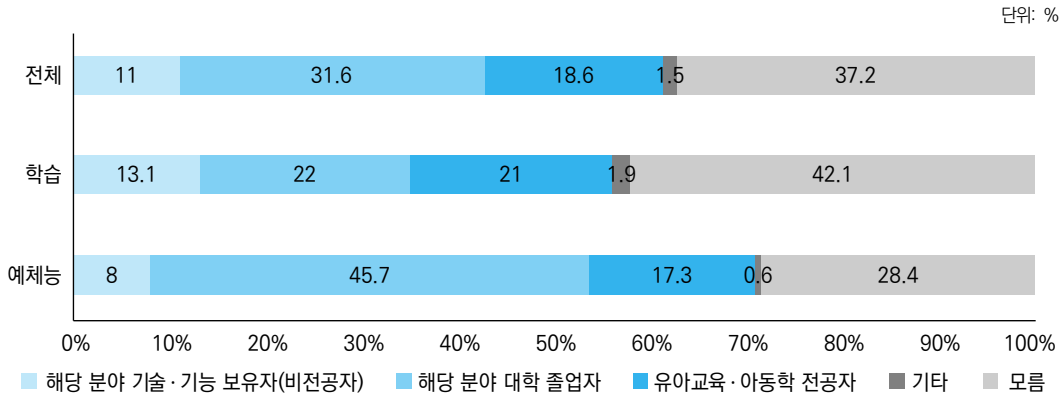


[그림 2] 사교육 프로그램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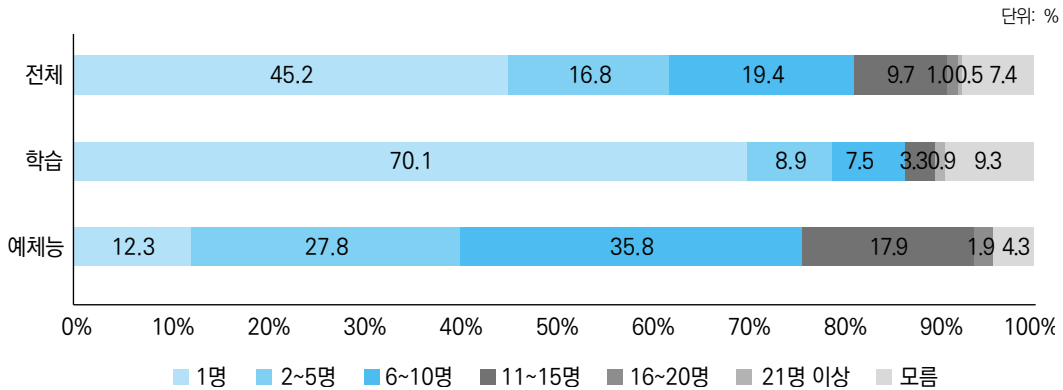
<표 4> 사교육 실시 장소

단위: %(사례수)

구분	학원	문화센터	집	체육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계
전체	10.5	23.7	53.1	3.6	2.8	6.4	100.0 (392)
예체능	17.9	48.1	17.3	8.0	4.9	3.7	100.0 (162)
학습	5.1	6.1	79.9	0.5	0.9	7.5	100.0 (214)
$\chi^2(df)$				171.81(5)***			



[그림 3] 사교육 강사 전문성



[그림 4] 사교육 프로그램 반 규모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의 반 규모는 1명이 4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10명, 2~5명 순이었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예체능은 6~10명이 35.8%로 가장 높은 반면, 학습은 1명이 70.1%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예체능은 그룹을 선호하는 데 반해, 학습은 1:1 지도를 선호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교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지나 워크북이 44.6%, 책이 30.6%로 많았다. 예체능은 교구가 70.4%로 상대적으로 많았으

나, 학습의 경우는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타 외국어는 학습지나 워크북을 교재교구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100%였으며, 그 다음은 수학 74.2%, 국어 74.1%, 영어 58.3%, 과학·창의 5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구의 경우 미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음악, 과학·창의, 체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세아 부모가 지불하고 있는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수강료는 5만7천원, 교재교구비용은 1만5천원으로 총 비용 7만2천으로 나타났다. 프

집 중 조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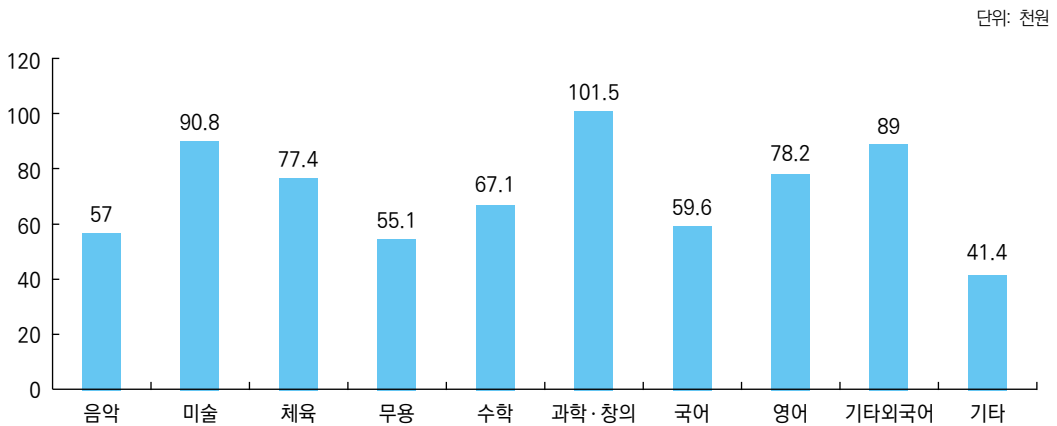
로그램에 따라서는, 예체능의 수강료가 학습 사교육보다 8만원 비쌌으며 교재교구비는 학습 사교육이 비싸 총 비용은 예체능이 7만6천원, 학습은 7만1천원이었다. 세부 프로그램별 총 비용을 살펴보면, 과학·창의가 10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술 9만1천원, 기타외국어 8만9천원, 영어 7만8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사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단위: %						
구분	학습지나 워크북	책	교구	기타	없음	모름
전체	44.6	30.6	58.9	0.3	7.4	2.6
대분류						
예체능	12.3	13.0	70.4	0.0	16.0	5.6
학습	68.2	40.7	50.0	0.5	1.4	0.5
소분류						
음악	19.0	14.3	76.2	0.0	14.3	4.8
미술	17.5	22.8	86.0	0.0	1.8	1.8
체육	3.4	1.7	64.4	0.0	23.7	8.5
무용	16.0	16.0	44.0	0.0	32.0	8.0
수학	74.2	29.0	58.1	0.0	0.0	0.0
과학·창의	57.5	37.5	72.5	0.0	5.0	2.5
국어	74.1	41.1	41.1	0.0	0.0	0.0
영어	53.3	53.3	46.7	3.3	3.3	0.0
기타외국어	100.0	100.0	0.0	0.0	0.0	0.0
기타	56.3	75.0	62.5	0.0	0.0	0.0

주: 복수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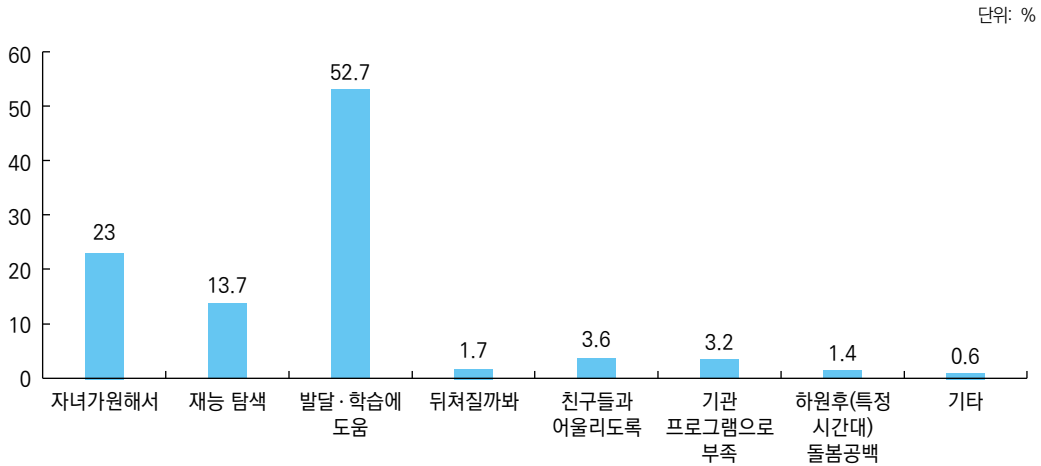
[그림 5] 사교육 프로그램별 월 납입 비용

4. 사교육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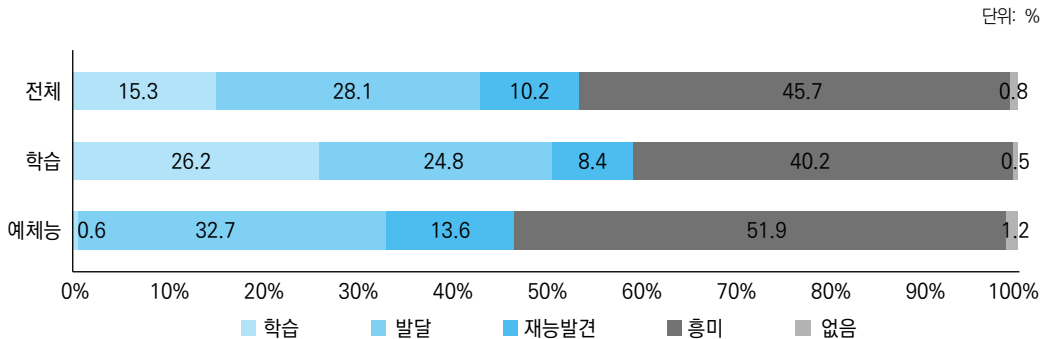
2세아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가 원해서 23.0%, 재능 탐색 13.7% 순이었다. 적은 비율이지만 돌봄 공백 때문이라는 이유도 1.4% 있었다. 재원기관별로는 학원 재원 2세아의 부모는 다른 기관 부모보다 재능탐색을 위해서,

또는 또래보다 뒤쳐질까봐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2세아 부모가 사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으로, 흥미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발달 28.1%, 학습 15.3%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예체능은 흥미, 발달, 재능발견 순으로 높은 반면, 학습은 흥미, 학습, 발달 순으로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예체능 가운데 체육은 발달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습 가운데 수학은 흥미보다 학습을 기대한다는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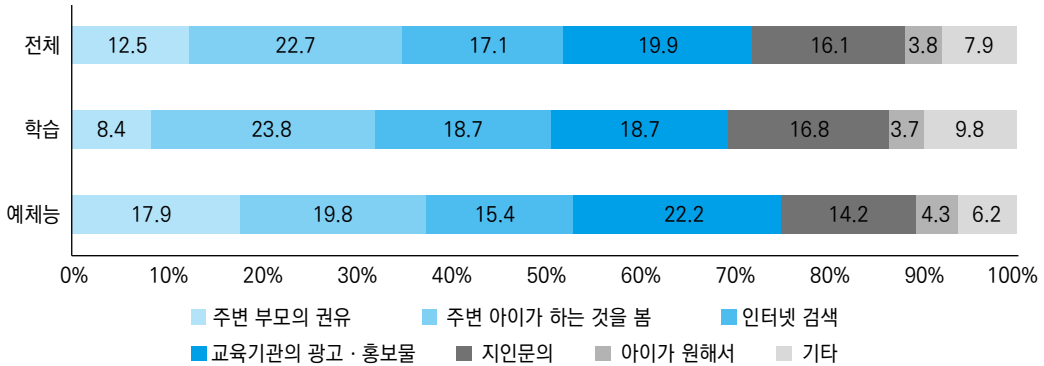


[그림 6]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순위)



[그림 7]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기대

집 중 조 명



[그림 8]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 경로

〈표 6〉 바람직한 사교육 정책 방향

단위: %(명)

구분	특성화 프로그램·특별 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 광고로 사교육 축소	사교육 유지 및 활성화	기타	계	$\chi^2(df)$
전체	53.9	26.7	13.0	4.0	2.4	100.0 (537)	
지역							
대도시	51.6	28.2	15.2	5.0	0.0	100.0 (245)	
중소도시	52.7	26.7	12.5	3.4	4.7	100.0 (205)	22.39(8)**
읍·면	78.3	17.3	2.2	1.6	0.6	100.0 (87)	
맞벌이여부							
맞벌이	51.9	24.6	16.2	3.3	4.1	100.0 (307)	17.47(4)**
외벌이	56.9	30.0	8.2	4.9	0.0	100.0 (230)	
보조양육자 유무							
있음	48.2	26.6	14.1	4.1	7.1	100.0 (173)	
없음	56.8	26.8	12.4	3.9	0.0	100.0 (364)	26.88(4)***

답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았다.

2세아의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경로는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22.7%)이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19.9%), 인터넷 검색(17.1%)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예체능은 교육기관의 광고·홍보물(22.2%)이 가장 많았고, 학습은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23.8%)하는 것이 많았다. 세

부 프로그램별로는 무용만이 아이가 원해서 선택했다는 비율이 16.0%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높았다.

2세아 교사와 부모에게 정부 사교육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교사와 부모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9.3%, 53.9%로 가장 많았고,

정부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교육 요구를 흡수하는 방향은 각각 30.7%, 26.7%, 조기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홍보하여 영유아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방향은 18.3%, 13.0%였다. 반면, 사교육을 유지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교사와 부모 모두 10% 미만이었다.

5.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분석한 2세의 사교육 실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조사대상 2세아 3명 중 1명은 사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을 시작한 연령은 평균 22개월로 매우 빠르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실태는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 시기(예체능 사교육 4.1세, 학습 사교육 4.5세)와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 여기에 2세아의 사교육 프로그램 선택경로는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부모들은 영아기 사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하는 것을 보고 불안한 심리에서 일찍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실제로 부모가 자녀의 발달특성에 맞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부모들이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상이 2세아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하는 유아 4명 중 3명은 학습 관련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세아가 수강하는 프

로그램의 유형은 국어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영아기부터 학부모들이 이후 학습을 위한 한글 교육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영아기부터 상당한 선행학습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영아기의 건강한 하루일과에 대한 홍보를 하며, 영아기에 편안하게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교육 정책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영아를 대상으로 사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주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사교육 기관의 홍보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영아기의 어린 자녀를 사교육에 참여시키면서도 강사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2세 자녀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학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영유아기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영아기가 모든 발달과 학습의 기초 성향과 태도가 형성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영유아기 사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요구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영아기에 사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영아 대상의 사교육 교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2세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은 교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은 학습지나 워크북, 책 순이었다. 특히 학습 사교육의 경우는 학습지나 워크북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주변세상을 알아가는 2세를 대상으로 한 학습지나 워크북은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이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세아의 사교육 양상은 가정배경, 특히 소득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대도시, 외벌이, 가구소득 370~480만원 가정의 영아가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다.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가구의 2세아는 다른 가구보다 학습 관련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예체능 사교육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이,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월평균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부모학력이 낮을수록, 보조양육자가 없을 때에 처음 접한 사교육이 국어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사교육 총비용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 48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이하에 비해 1.5배의 사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가구수입이 낮을수록 비용은 적지만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저소득 가정의 영아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낮은 비용의 학습 사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특히 저소득 가정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어린 자녀를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가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사대상 2세아의 21.6%는 과거에 사

교육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2세아가 사교육을 중단한 이유는 '신체적인 부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유사한 특별활동 생겨서'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인 부담까지 줄 정도의 사교육, 발달특성에 적절하지 않아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사교육을 너무 일찍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부모의 사교육 욕구의 일정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흡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아기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정부 차원에서 제한해야 하며, 부모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도 2세아의 발달에 적합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어린이집에서 담당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방안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2세아에게 적합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발달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상의 세부적인 방안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기에 사교육이 필요 없는 마음껏 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교육에서 학생중심으로 개별화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핀란드에서는 사교육 수요가 거의 없다는⁸⁾ 점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교육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사회복지장비 지출의 증가는 개인의 사교육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결과는 정부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노력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8) Bray(2011). Bray, M. (2011). The challenge of shadow education.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in the European Unio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NESSE Network. Online at: <http://www.nesse.fr/nesse/activities/reports/the-challenge-of-shadow-education-1>.

9) 김경년·김안나(2015). 김경년·김안나(2015). 사교육, 교육만의 문제인가?: 복지국가의 위험 분담과 사교육 선택의 대응 원리. 교육사회학연구, 25(1), 29-50.